

만나봄시다

삼흥문화인쇄 고이평재사장
미망인 박순자여사

“지금도 해외 여행 중이신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삼흥문화인쇄사 고이평재사장의 미망인 박순자여사. 박여사는 지금도 남편이 공항에서 서울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할 것 같으며 전화기를 슬쩍 바라본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세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의 눈빛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기자가 불쑥 찾아가자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사업가로 변신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 할 정도로 외견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남편의 갑작스럽던 사망으로 삼흥문화인쇄사 대표에 취임한 박여사는 지금은 ‘박순자사장’이라는 호칭이 어울릴 정도로 인쇄사업가로 변신해 가고 있으며 인쇄여성경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삼흥문화인쇄사를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남편세운 회사 잘 지켜야죠”

이평재사장이 세상을 떠난 건 2000년 11월. 인쇄업계 지인들과 함께 무주구천동으로 등산을 다녀온 후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워낙 건강체질이어서 대부분의 인쇄인들이 그의 운명을 충격으로 받아 들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로써 남편의 건강을 좀더 챙겨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1주일만에 회사에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동생(박순엽실장)이 근무하고 있어서 생산현장은 걱정이 없었지만 대금결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정 주부로서만 살다가 세상에 나오니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상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어요. 특히 업계 어른들께서 큰 힘을 주셨습니다. 거래처에서도 대부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주셨구요. 이번 기회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가지 느낀 것은 저 세상으로 가신 남편이 인심을 잃지 않았구나라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흥문화인쇄사의 직원은 모두 10명 정도.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고이평재사장의 생전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여러 사람이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한분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도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돈을 보고 삼흥문화인쇄사에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돈 때문이라면 벌써 다른 회사로 옮겨갈 겁니다. 이평재 사장님을 잊을 수 없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전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기장의 귀뜸이다.

기자가 2년전 삼흥문화인쇄사를 찾았을 때처럼 사무실과 현장의 분위기는 오늘도 그대로였다. 고이평재사장의 수상 사진과 벽에 걸어놓은 액세서리, 책상위치, 공장의 기계와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모두가 예전 그대로다. 박순자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평재사장이 지금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해에는 제본기를 새로 교체했어요. 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요. 사실 지금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직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근황을 묻자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한 박사장은 큰아이(딸)를 작년에 시집보냈고 아들(28세)은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언젠가 회사를 맡아 운영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겠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여성으로서 인쇄업을 꾸려나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면 영업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쇄’라는 것에 아직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단다.

고이평재사장은 인쇄산업과 단체발전, 인쇄인들의 인화와 단결을 위해 동분서주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이사, 서울인쇄조합이사, 서울인쇄조합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을 역임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쇄인들과 함께 을지로 인쇄타운 한켠에서 우리나라 인쇄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유청준국장〉